

아아악!



상진이가 개미가 되었다.

나비로, 공벌레로, 지네로, 파리로 왜 자꾸 환생하는 걸까?

상진이는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빅빅빅

에라, 모르겠다!

탈모 때문에 가발을 쓴 현준이는
머리가 미치도록 가려워 가발을 벗었다.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운 반전을 선사한다.





쿠~아앙!

학교 건물 3층에서 티라노사우르스와 눈이 마주쳤다.

가만, 저 공룡 누군가를 닮았는데?

공룡은 왜 학교를 부수는 걸까? 공룡의 정체는 무엇일까?

백두산 폭발에 사방에 쓰레기 비가 내린다.

버린 재활용 미술품 로봇도 자꾸 지훈이 앞에 떨어진다.

캡스 덕분에 지훈이는 쓰레기 대란을 멈출 방법을 찾아내는데...





어휴, 이게 뭐야?

미노의 그림을 보는 어른들마다 잔소리다.
그런데 한순간 미노의 그림이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머러스한 미노의 기지가 허를 찌른다.

신나는 상상과 답답한 현실을 통쾌하고 조화롭게 담아낸 동화집!

#생명존중 #쓰레기 문제 #타인에 대한 관심 #놀이 권리 #창교육



윤주성 글 | 이수영 그림 | 128쪽 | 12,000원

마
음
이
음